

慶州崔氏鶴洲公派譜序

무릇 族譜는 一家의 歷史요 그 族譜를 攄는 것은 族親끼리 根本과 宗支昭穆을 明確히 하여 敦睦을 하기 爲함이다.

우리 崔氏는 新羅國初 蘇伐公께서 得姓하셨으며 東方의 巨族이었다. 그후 新羅末에 文昌侯는 儒宗이시며 高麗朝 忠烈公의 功勳과 野隱公의 節義 朝鮮朝에 와서 永思亭公의 忠直 烈士公의 忠節등 代代로 이어온 그 赫赫한 功勳은 公書史記에 永遠히 빛나고 있다.

이러한 先祖의 崇高한 遺德을 기려 同根千枝의 우리 宗族은 崇慕精神을 涵養하고 相扶相助하여 世上의 本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의 修譜는 丁酉譜 修譜以後 二十五年이 지나는 동안 變更된 子孫의 存亡이나 子女의 嫁娶 生殖狀況 등을 正確히 收錄하여 子孫의 繁衍을 明確히 하고 八域에 散居한 宗族을 集合하는데 절실히 要請되는 일이었다. 그러하므로 우리 門內 各宗支私門中에서 修譜하자는 門論이 齊發하여 一九八〇年(庚申) 陰曆十一月十八日 門會를 開催하였는데 이 會議席上에서 지난 丁酉譜 修譜當時 企圖했던 爲先事業을 계속 推進하려면 이번 修譜까지는 鶴洲公派譜를 發刊해야 한다는 衆論에 따라 不得已 鶴洲公派譜를 發刊키로 決議하고 族親이 渾然一體가 되어 적극 協力해 주신 보람으로 收單은 빠른 時日內에 끝났으나 上系起世를 速斷하지 못하여 豫定했던 發行日字보다 遲延되었음을 諒解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아! 항상 우리 忠烈公派의 上系昭穆이 昭然하지 못하여 中祖 忠烈公으로 起世했었

慶州崔氏鶴洲公派譜

는데 이번 다투는 譜牒에는 「韓國人의 族譜」와 大田譜所에서 刊行한 今修 大同譜 上系를 參酌하여 文昌侯를 一世祖로 起世하여 始祖로 부터 이어온 系統을 明白히 하였다. 그리고 譜牒製本에 있어서는 所藏 奉覽에 便利토록 洋裝 單本으로 成牒하였다.

不肖 猥濫되어 都有司의 重責을 맡아 敢히 그 所任을 堪當할지 두려웠으나 門老顧問諸位의 指導와 各 責任任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力으로 有終의 美를 거두었음을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特히 先祖文獻의 國譯을 專擔해주신 族兄 邦鎮氏의 勞苦에 深甚한 感謝를 드린다.

檀紀四三一五年壬戌孟夏

後孫

光

鎮

謹識

跋

淺見薄識하고 修譜에 대한 一毫의 經驗도 없는 不肖가 編輯의 重責을 맡아 있는 힘을 다 쏟아보았으나 역시 未備된 點非一非再일 것이니 이 點 族親諸位의 諒解를 먼저 求하는 바이다.

이번 派譜는 文昌侯 二十世孫이신 鶴洲公의 後孫들만 修錄한 名實共히 鶴洲公派의 譜牒이다. 諱 光位 以上の 上系는 지난 戊辰譜나 戊戌譜에 修錄됨이 없었는데 이번 派譜에는 「韓國人의 族譜」와 大同譜에서 參考하여 옮겨 실어 文昌侯 孤雲始祖로부터 代를 이어 修錄하였으며 諱、名 아래 국문을 붙여 알기 쉽게 하였다. 先祖의 모든 文獻은 讀者의 理解를 돕기 위해 邦鎮族兄(當時 全南大學校工科大學長)에게 請하여 國譯하였고 校正과 上系의 圖案作成은 日出族兄(譜名 貞鎮 前言論人)의 手筈을 빌렸으니 이 두분 兄님의 精誠어린 勞苦에 衷心으로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編輯은 收單의 整理에 不過했음은 모든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修譜에 獻身努力하신 任員諸位와 收單有司 여러분 또한 族親諸位의 아낌없는 協力과 愛族心에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이렇게 힘써 修譜하였지만 居住不明으로 漏落된 族親이 적지않을 것이며 한편 極少數 이기는 하나 故意로 單不入한 者도 있었으니 오직 아쉬움이 뒤따를 뿐이다. 一木이 如千 枝萬葉인바 千子萬孫이 그 上이 一祖이온데 어찌 收單에 不應할 마음이 일어났는지 더우 기 先祖의 諱를 바꾸어 他派譜에 納單하여 直系祖先을 욕되게 한 族親도 있었으니 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鶴洲公派의 子孫들은 大同團結하여 빛나는 先祖의 얼을 代代 孫孫에게 이어지게 할 것이며 族親 한 사람이라도 이 隊列에서 離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檀紀四二一五年壬戌三月上泮

鶴洲公後孫

判

鎮

謹跋

慶州崔氏鶴洲公派譜序

夫家之有譜猶國之有史國而無史則無以攷政教之得失家而無譜則無以別氏族之親疎也然則有國有家者不可無史與譜也惟我慶州之崔世稱六部大姓三韓舊族而自蘇伐都利公以後文獻無徵文昌侯遺蹟亦未炯然至麗朝鷄林君世系分派始有別焉若月城君鰲山君並登臺位名著國乘逮夫我朝諱孟濟仲濟季濟三昆弟卓然拔萃又繼以蒞庵永思二公之忠孝文章懋乎一世其餘行義文學相繼不絕豈不盛哉然則各派派譜秩然修輯而特我鶴洲公派苗裔屢經兵禍散居列邑多不載錄於譜不思所以尋流而知源尋葉而知根則嗚呼百代之親將未免路人之歸矣其敦睦之義豈敢放想然乃已幸今歲春鶴洲公派後孫中有勅發此議遍訪列邑洩譜諸族以修整鶴洲公派派譜詢謀協同編成四冊付諸剞劂氏今踰年而告有成此非鶴洲公派門中一巨盛幸之事耶余以無似徒壽行并高非惟不敢固辭自不勝喜悅妄記之焉

檀紀四千二百九十一年戊戌三月上澣

後孫 貞 煥 謹序

□ 譯 文

대저 世家에 族譜가 있어야 함은 國家에 國史가 있어야 함과 같으니 國家에 國史가 없으면 政教의 得失을 상고할 수가 없을 것이며 世家에 族譜가 없다면 世親을 分別할 수가 없을 것이니 國家에 國史가 世家에는 族譜가 없지 못할 것이다。

우리 慶州崔氏는 世상이 말하는 六部大姓으로서 三韓의 舊族이나 蘇伐公 이후로 証

據할만한 文獻이 없고 文昌侯의 遺蹟 또한 밝지 못하다.

高麗朝에 이르러 鷄林君의 世系와 分派가 비로소 分別이 되고 月城君 鰲山君 같은이 는 臺位에 올라 名聲이 國史에 빛났더라.

朝鮮朝에 이르러 諱 孟濟、仲濟、季濟의 三兄弟는 卓然히 뛰어나셨으며 또 이어서 菘菴公과 永思公 두분의 忠孝와 文章이 한세상에 빛났고 그 뒤로도 行義와 文學이 끊 임없이 이어지니 어찌 盛事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各派의 派譜가 秩序바르게 修輯되어 왔는데 特히 우리 鶴洲公派만은 後孫이 여러차례 兵禍를 입어 各地에 散居해서 譜帖에 실리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 물의 흐름을 찾아야 샘을 알고 잎을 찾아야 뿌리를 알게 됨 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 百代에 걸친 親族이라도 他人이 되고 마는 結果를 免치 못 할 것이다. 그 敦睦의 義를 어찌 放念하고 말 것인가.

多幸히 今年 봄에 鶴洲公派 後孫中에 이런 議論을 꺼내 각 고을에 사는 譜에 빠진 여러 親族들을 두루 찾아 鶴洲公派 派譜를 修整하고 協議 協同해서 四冊을 編成하여 印刷에 부쳐 해를 넘겨서 이제 完成되니 어찌 鶴洲公派 門中의 一大盛幸之事가 아 니겠는가. 내가 괜히 나이가 많고 항렬만 높았지 어울리지 않아서 굳이 사양하지 않은 바가 아니나 스스로 喜悅를 이기지 못하여 망령되어 이를 적노라.

檀紀四千二百九十一年戊戌三月上澣

後孫

貞

煥

謹序

小序

天生斯民也莫不有祖先莫不有祖先則亦莫不有子孫以一人之身而千派一源萬葉同根在子孫固

不無親疎遠近之別而自祖先視之則均是吾子若孫雖然耆功而總至於無服之親則其不爲路人者幾希前輩爲是懼必欲追遠而不忘至疎而愈親故衰成一家之史而名之曰譜其意亦淵乎微矣竊伏見我氏之來歷則吾邦大族也勝國時世有聞人固已萃顯厥亦惟我朝 餘蔭未艾世襲簪纓行篤忠孝道學文章院宇俎豆之所不可勝紀世之以名門家先屈拇焉嗚呼中葉以來我先祖鶴洲公後仍之昭穆或謬行列代序不正或有續而無續或無續而有續或有遺珠訛謬使我族親雖百世之下未免塗人則言念至此不覺寒心骨冷也不佞素以魯莽之質每依憤慨之心扶植厚本敦末之義委身一生博攷廣搜數十載矣然而力綿未果何幸丁酉夏適有修譜之論不肖平生所蘊果有解釋之秋也馳往講睦之列與各宗中僉賢合聚一席以誤舛者釐之闕漏者補之事一遵完約而即時通告諸族蒐集單文活印成牒譜雖率略考諸往牒莫若斯譜之貴重誰可諒之耶嗚呼一覽斯譜尊祖敬宗之義愈竊更新使千秋而難忘其感云爾

戊戌三月上澣

後孫

基

善

謹識

□ 譯 文

하늘이 이 백성을 낳으매 祖先이 없을 수 없고 祖先이 없고는 또한 子孫이 있을 수 없으니 한 사람의 몸이 千派와 萬葉의 根源이 되는 것이므로 子孫 사이에는 親疎 遠近의 차는 있다 하겠으나 祖先의 立場에서 본다면 다 같은 子孫이라. 그러나 服을 입지 않을 만큼 寸數가 멀어지면 他人과 같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옛 사람들이 이 점을 두려워한 나머지 먼 조상을 追慕하여 잊지 않으며 멀리 살수록 더욱 친하기를 꼭 바라는故로 一家의 歷史를 엮어 이를 譜라 하는 것이니 그 뜻이 깊도다.

가만히 우리崔氏의來歷을 보건대 우리나라의大族이라 옛날에는代代로 이름난이
 가있었고 또朝鮮朝에 와서는 그蔭德으로代代로 벼슬을 했고篤實한行爲와忠孝와
 道學、文章으로院宇에 제사모셔지는곳이여러군데있어다적을수는없으나세상에
 名門家로 으뜸이라 하겠다。슬프다朝鮮中葉 이후로는우리鶴洲公의後孫이行列代序
 가틀려있기도 하고或은代가이어 있음에도 없는것으로 또는 없는데도 있는것으로
 그리고혹남기신글이있어도訛謬가있고해서우리親族이라도百世로 내려가면 남
 과같이됨을免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점을생각하면한심할 따름이라。不肖 비록 못
 낫지만늘恨스런 마음을 품고 뿌리와 가지를 두텁게 하는義에一生을 바쳐 널리 생
 각하고 널리 찾기를數十年이 되었으나 힘이 모자라 그實을 보지 못하던 次에多幸히
 丁酉年 여름에修譜하자는議論이있어 내가平生을 두고 품어왔던 바가 비로소 풀
 릴 때가 있고나 싶어 달려가 논의하는 자리에 끼어各宗中의 여러 어른과 한 자리에 모
 여 들린 데는 고치고 빠진 곳은 補充하는 일이 完全히 合議되는 대로 即時 諸族에 通告
 하여 單文을 모으고 印刷하여 譜牒을 펴내니 비록 조출하나 무은 譜牒이 이 譜牒의 貴
 重함에 미치지 못함을 위라서 알아 줄 것인가。아 한번 이 譜를 보면 祖先과 親族을 尊
 敬하는 마음이 더욱 새로와져서 千年이 지나도록 그 느낌을 잊기 어려우리라。

檀紀四千二百九十一年戊戌三月上澣

後孫

基

善

謹識

慶州崔氏鶴洲公派譜

始祖

崔致遠 치원

字孤雲號海雲一曰字海夫號孤雲沙梁郡人 新羅

憲安王丁丑禮紀三一九〇年生先生美風儀

精敏好學年十二隨海舶入唐尋師力學唐

僖宗乾符元年甲午登第時年十八調漂水縣

尉還侍御史內供奉 賜紫金魚袋為都統

高駢從事作黃巢檄書巢見檄墮床由是名

動天下午二十八奉

帝詔翌年還本國 憲康王留為侍讀兼翰林

學士兵部侍郎知瑞書監事先生欲展所蘊

而朝庭多疑忌出為富城泰山天嶺等郡太

守

真聖主甲寅進時務十餘條 主嘉納之拜阿

殮 先生自西遊東還皆值世亂無復仕進

意自放山水間營臺榭植松竹枕藉書史嘯

咏泉石遍觀東國名勝晚隱伽椰山以終高

麗

顯宗庚申追 贈內史令從祀 文廟至癸亥

贈諡文昌侯鰲山上書莊狼山讀書堂至今

宛然有桂苑筆耕二十卷文集三十卷中山

覆篋集五卷經學隊仗三卷唐書藝文志載

四十六集一卷行于世

享慶州西岳書院泰仁武城書院出三國史

記高麗史名臣列傳

配羅州羅氏承相業女

慶州崔氏鶴洲公派譜

二世

子殷含 은함

新羅元輔 配位姓氏生忌墓所不傳 謹按高麗史則

「仕新羅官元輔久無嗣禱而生承老」

○文貞公伽椰舊居吟曰

有田誰布穀 山鳥何心緒

無酒可提壺 逢春謾自好

出小華詩評

○公之於文昌侯事實不一無所詳據的證從

處而文昌侯於文貞公則七十年相距也伏

念文昌侯東還時年二十八而到于月城翌

年三月則二十九歲也入唐當時年不過十

二則童穉之年也東還後娶婚而生子則三

十以後之事的實無疑矣

公則高麗史云 久無嗣禱而生承老則文

貞公亦公年四十以後出生的實無疑也由

此推念則文昌公於文貞公七十年相距無

怪首肯之事而小華詩評文貞公伽椰舊居

吟註云「往訪伽椰舊居追慕父祖而吟」則

文昌侯元輔公文貞公三代父祖孫者確證

無疑然不敢擅書子字則以俟後日博考秉

筆焉

三世

子承老 승로

門下侍中平章事封 清河侯食邑七百戶

○公聰敏好學年十

二高麗

太祖召見使讀論語嘉

之 賜塩盆拜隸院

鳳省學士 賜鞍馬

例食二十碩自是委

以文柄歷事

太惠定光景成六朝

成宗元年(三三一五)

壬午公論時政得失

二十八條以斥拂崇

儒為第一義高麗

太祖十年(三二六〇)

丁亥生

成宗八年(三三二二)

己丑五月卒壽六十

三

贈太師大匡內史令諡

文貞

贈贈布一千疋麵三百

碩粳米五百碩乳香

一百兩腦原茶二百

角大茶一百斤

四世

子肅 見下

史部尚書門下侍中

配金寧郡夫人金氏尚

書廉女

女朴

松鷄公后子朴光廉

諡文忠光祐禮部侍

郎

女朴

相

相

相

相

相

相

相

相

相

相

相

相

相

相

相

相